

동백나무

(학명 : *Camellia japonica*, 차나무과)



이 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나, 송창식의 '선운사'라는 가요에서 노래하는 동백나무는 꿀도 화분도 많이 나오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백꿀도, 동백화분도 상품화되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동백나무가 추위에 약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해안지대와 서해안에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차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 빗죽이나나무, 후피향나무, 노각나무 등) 상록 소교목으로 높이 7m에 달하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 뒷산에는 수령 수백년 된 동백나무가 수백본 있고, 전라남도 여수 오동도는 섬 전체에 동백나무가 있다. 경상남도 한산도에도 동백나무가 많다.

수간은 평활하며 수피는 회갈색이다. 잎은 호생하며 길이 5~12cm, 너비 3~7cm로 타원형이며, 침두이고 넓은 예저이고 파상의 거치가 있다. 표면은 진한 녹색으로 광택이 있고, 뒷면은 담녹색



동백나무의 개화 전경

이다. 2~4월에 적색의 꽃이 피며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비스듬히 선다. 꽃받침과 꽃잎은 5개씩이며 꽃밥은 황색이고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로서 둥글고 지름이 3~4cm로서 9~11월에 익으며 3개로 갈라진다.

정원수와 생화용으로 쓰이며 열매로서 기름을 짠다. 이 기름을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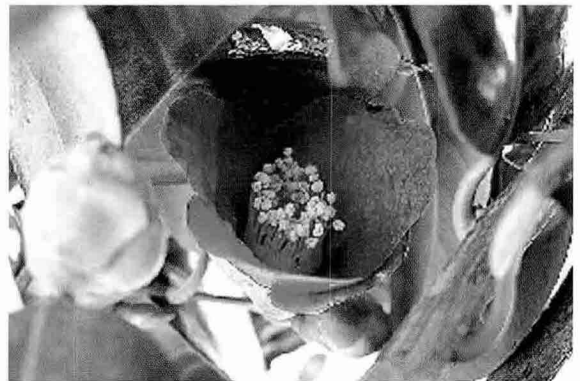
날에는 여인들의 화장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벌써 20여년이 되었을까? 전라남도 진도에 갔더니 어느 부부가 동백나무 농장을 차려놓고, 입장료도 받고, 동백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 팔고 있었다. 그 분들의 설명으로는 참깨기름보다 맛이 좋다고 하였다.

삼목과 종자로 번식시키나 품종에 따라 발근율에 차이가 크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하므로 채종 즉시 직파하거나 습기있는 모래와 섞어 저장하였다가 파종한다. 3~4월, 6~8월에 가지삼목이나 엽아삼목을 하여도 되고, 삼목이 어려운 품종은 접목을 하기도 한다.

꽃과 잎이 예쁘므로 여러 나라에서 개량한 재배품종이 많다. 관상용으로 개발된 품종은 겹꽃이 많은데, 겹꽃은 밀원용으로 좋지 않은 듯하다. 꽃잎이 겹으로 암술과 수술을 싸고 있어 벌이 수술과 암술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 벌과 식물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다. 식물은 벌에게 꿀과 화분을 주고, 벌이 꿀과 화분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다른 꽃의 화분을 매개하여 수정이 된다. 그런데 관상용으로 개발된 품종들은 사람들이 애써 번식시키므로 식물자체가 번식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꽃잎을 많이 만들고 색을 아름답게 하다보니, 꿀이나 화분을 만들 여력이 없는 것이다.

동백나무는 홑꽃이 피는 재래종이 겹꽃이 피는 개량종보다 비싸다. 아마 재래종의 번식이 개량종보다 어려운가 보다.

동백나무는 대구지역에서만 해도 화분에 심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아야 된다. 자생지에서도 3월에 꽃이 피므로 벌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추울 것이다. 따라서 동백나무에서 꿀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월동을 끝내고 번식을 시작하는 봉군에게 귀한 꿀과 화분을 공급할 것이다. 최근에는 농업 각 부문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동백나무 대단위 하우스재배를 한다면 밀원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 꽃. 관상용으로 개발된 겹꽃은 벌이 꿀샘과 화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밀원으로 이용되기가 어렵다. 홑꽃은 접근이 쉽고, 꿀도 화분도 아주 많다.